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김 소 영¹⁾

윤 기 봉²⁾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총 2,137명의 청소년(남자 1,148명, 여자 98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높았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의 영향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긍정적 양육태도, 또래관계, 세대전이

* 본 논문은 2021년 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E-mail: ykbong0323@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은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매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아동·청소년들 역시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주 연령층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20)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88.6%가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하였으며, 2021년 청소년통계(통계청, 2021)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잠재적 의존 위험군과 의존 고위험 비율이 2016년 30.6%, 2018년 29.3%, 2020년 35.8%로 늘어나며 타 연령대에 비해 전년대비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그 심각성이 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자아 정체성과 낮은 자기개념의 발달이라는 시기적 특징과 맞물려 다른 연령층보다 스마트폰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김정숙, 2003).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독에도 취약한 시기로 알려져 있어(Chambers & Potenza, 2003; Gladwin, Figner, Crone, & Wiers, 2011) 청소년, 특히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조기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폰 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고, 조절력이 감소하여 신체적·심리

적·사회적으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 신체 건강문제, 정서적 어려움, 수면 방해, 학업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한다(Kim, Kim, & Jee, 2015; Lemola, Perkinson-Gloor, Brand, Dewald-Kaufmann, & Grob, 2015; Lepp, Barkley, & Karpinski, 2014; Samaha & Hawi, 2016; Seo, Park, Kim, & Park, 2016; Shoukat, 2019; 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그 경로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예방과 중재적 개입을 위해 중요하다.

한편,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 의존, 과몰입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중독(addiction)은 술, 마약, 담배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나 생리적 의존으로 정의되며(이병윤, 1992), 의존이 심해지면 중독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배정숙, 2014).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의존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존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박웅기,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는 중독(권예지, 나은영, 2017; 김소영, 홍세희, 2014)

이라는 용어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측면을 담고 있는 의존(Lu et al., 201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형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스마트폰 의존 관련 연구들은 우울, 불안,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적 요인(고은영, 김은향, 2017; 김영미, 2020; 이상준, 2017; 이현이, 이영선, 2019)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가정환경과 사회화의 관점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과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로 확장되었다(김인숙, 김도연, 2017; 신하나, 정세훈, 2018; 정하영, 최선영, 2021; 조경서, 김은주, 2016; Liu, Fang, Zhou, Zhang, & Deng, 2013; Nakken, 2009; Xie, Chen, Zhu, & He., 2019).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은 시간 사용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다는 연구(김인숙, 김도연, 2017)는 어머니의 행동습관과 스마트폰에 대한 태도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길거나 의존성이 높으면 유아기 자녀 또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길거나 의존성이 높았으며(김민석, 문혁준, 2015; 박소영, 문혁준, 2015; 조경서, 김은주, 2016),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으로 나타났다(정하영, 최선영, 2021).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이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외현화 행동문제, 불안, 정서조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

시키고(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2014; 조윤미, 이형선, 2016),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하문선, 2020; Kim, Kang, & Lee, 2020),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있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녀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온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가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Bandura(1971)의 사회학습이론은 인지, 행동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결정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환경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인지과정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인간의 인지는 점점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내부기준을 정하고 이와 함께 자기평가 및 비교를 하게 된다(Bandura, 1971). 따라서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받은 청소년은 모델링을 통해 이러한 외부환경이 기준점이 되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스마트폰 의존의 수준이나 위험도에 대한 비교와 자기평가가 더 낮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행동을 더 하도록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신하나, 정세훈, 2018).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인터넷 이용행태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 이용량, 중독적 이용 습관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Liu, Fang, Deng, & Zhang, 2012; Liu et al., 2013)과 부모 중 한 사람이 휴대폰에 중독된 가정에서 양육될 때 그 자녀 또한 중독자가 되거나 중독적 생활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Nakken, 2009)를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Phone(폰)’과 무시하다는 ‘snubbing(스너빙)’의 합성어로 부모가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쓰지 않는 것을 뜻하는 ‘phubbing’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Xie et al., 2019)도 이러한 가정을 지지해준다. 그러나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이 어머니에서 청소년 자녀에게로의 세대전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예방 및 중재 개발에 대한 더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는데(Pinquart,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있어서도 양육태도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충래, 김소연, 2016; 이미라, 박세정, 2020; 임선아, 권미나, 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감독과 애정, 합리적 설명, 자율성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을 더 할수록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게 나타났으며(노충래, 김소연, 2016; 문두식, 최은실, 2015; 이미라, 박세정, 2020;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부모가 방임, 강요, 거부 등과 같이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지윤, 강현아, 2017; 류미숙, 권미경, 2011; 이미라, 박세정, 2020). 또한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지속해서 보이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세계에 있는 가상의 대인관계에 더 의존하였다(임정아, 김명식, 2018; 정일영, 2016). 그러나 이와 상반된 결과들도 보고되는데,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휴대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김지혜, 2012)와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김소영, 홍세희, 2014)가 그러하다. 또한 부모가 감독을 덜 할수록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도가 높았으며(김도연, 양혜정, 2014),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중학생의 휴대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신경미, 황순택, 2016; 이하나, 양승목, 2018).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보고되어 있어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좀 더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도,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차원에서 또래관계는 중요한 요인(김대웅, 이강이, 202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주목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의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좋아지면 스마트폰 의존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노석준, 2013)가 있으며, 반대로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부정적일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었다(김대웅, 이강이, 2020; 조춘범, 2017; 황소희, 이영애, 2018).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또래친구와의 관계지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또래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또래관계 유지를 위한 스마트폰 의존이 스마트폰 중독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 위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어머니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각각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선행 요인들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선행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양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어머니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Kildare & Middlemiss, 2017; Wolfers, Kitzmann, Sauer, & Sommer, 2020). 이는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건강한 애착 형성을 방해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교영, 신희천, 2011; McDaniel & Coyne, 2016).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거부, 강압, 비밀관성과 같은 양육태도를 더 보이며,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높였다(Kim et al., 2020). 따라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그 관련성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기 자녀는 자신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형성해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는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며(정미경, 2002),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연관이 있었다(김민정, 2019; 송미라, 한기백, 2015; 임연정, 진미경, 2015). 이처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이 청소년기 자녀의 긍정적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운데 긍정적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긍정적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

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의 관계(하문선, 2020; Kim et al., 2020),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관계(김민정, 2019; 송미라, 한기백, 2015; 임연정, 진미경, 2015) 및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어머니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Kim et al., 2020) 등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보이는 중학생(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순차적 매개 경로를 하나의 모델로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향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CYPS 2018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모집단으로(2018년 기준), 다단계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2,590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를 제외한 2,13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2,137명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다. 중학교 1학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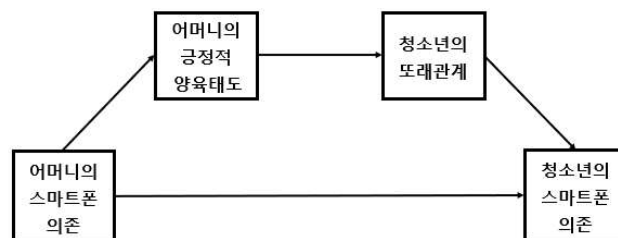


그림 1 . 연구모형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심리적 불안정을 겪기 쉬우며,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가상 세계에 더 의존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미영, 2003). 실제로 최근 청소년들 가운데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표 1 참조),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 1,148명(53.7%), 여자 989명(46.3%)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764명(35.8%), 4년제 대학졸업 657명(30.7%) 순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585명(2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70명(22.0%)으로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2,137)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청소년의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남자	1,148(53.7)	중학교 졸업 이하	40(1.8)
여자	989(46.3)	고등학교 졸업	764(35.8)
		전문대 졸업	561(26.3)
월평균 가구소득		4년제 대학교 졸업	657(30.7)
소득 없음	1(0.0)	대학원 이상	112(5.2)
100만 원 미만	24(1.1)	무응답	3(0.1)
100만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96(4.5)	어머니의 직업	
200만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73(8.1)	관리자	68(3.2)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337(15.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70(22.0)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458(21.4)	사무종사자	340(15.9)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410(19.2)	서비스종사자	339(15.9)
6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216(10.1)	판매종사자	150(7.0)
7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165(7.7)	농림어업 종사자	30(1.4)
8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77(3.6)	기능원	42 (2.0)
9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75(3.5)	장치/기계 조작조립	15(0.7)
1,000만 원 이상	105(4.9)	단순노무 종사자	81(3.8)
		군인	2(0.1)
		주부	585(27.4)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모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1차년도 자료의 도구이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김동일 등(2012)의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1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하위요인은 일상생활 장애(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3문항의 역채점을 통해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역채점한 문항은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다. 문항의 예로는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6, 각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장애 .67, 가상세계지향성 .67, 금단 .67, 내성 .77이었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Skinner, Johnson과 Snyder(2005)가 제작한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A)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

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 PSCQ_KA)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따스함(warmth), 거부(rejection),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강요(coercion), 구조제공(structure), 비일관성(chaos)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문항을 활용하였다. 청소년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신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따스함 .91, 자율성지지 .88, 구조제공 .80이었다.

청소년의 또래관계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의 한국판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호친밀감, 사회적지지, 또래관계 만족의 하위요인을 가진 긍정적 관계의 질과 갈등과 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와 고립의 하위요인을 가진 부정적 관계의 질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관계의 질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관계의 질이 높도록 하였다. 청소년의 응답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5이었으며, 긍정적 또래관계 .89, 부정적 또래관계 .74이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김동일 등(2012)의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청소년에게 맞게 일부 수정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일상생활 장애(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로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등이 있으며, 청소년에게 맞게 일부 문항이 업무 대신 학업/공부로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3문항의 역채점을 통해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한 문항은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8, 각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장애 .74, 가상세계지향성 .56, 금단 .75, 내성 .79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1.0(IBM Co., Armonk, NY),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내적합치도 산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한 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때, 어머니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및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의 학력, 청소년의 성별(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 김희민, 신성희, 2015; 이하나, 양승목, 2018) 및 월평균가구 소득(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56 ~ 1.07, 첨도는 -.19 ~ .98로,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 분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5). 또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2,137)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40***	-											
3	.44***	.67***	-										
4	.65***	.42***	.47***	-									
5	-.14***	-.21***	-.19***	-.15***	-								
6	-.19***	-.22***	-.19***	-.18***	.72***	-							
7	-.12***	-.15***	-.12***	-.14***	.54***	.54***	-						
8	-.09***	-.13***	-.10***	-.11***	.30***	.33***	.30***	-					
9	-.24***	-.27***	-.25***	-.21***	.26***	.28***	.19***	.29***	-				
10	.13***	.10***	.13***	.10***	-.07**	-.06*	-.06**	-.04	-.12***	-			
11	.07***	.13***	.15***	.08***	-.10***	-.10***	-.08***	-.06**	-.11***	.47***	-		
12	.09***	.12***	.18***	.10***	-.09***	-.09***	-.06**	-.05*	-.11***	.43***	.64***	-	
13	.10***	.08***	.12***	.12***	-.06**	-.07**	-.05*	-.06**	-.08***	.58***	.55***	.57***	-
M	2.21	1.59	1.72	2.33	3.39	3.35	3.07	3.13	3.15	1.83	1.47	1.78	1.85
SD	0.58	0.60	0.57	0.65	0.57	0.58	0.53	0.52	0.52	0.52	0.55	0.54	0.57
왜도	.14	.91	.59	-.07	-.54	-.56	-.29	-.30	-.45	.44	1.07	.38	.34
첨도	-.19	.52	.01	-.40	-.06	-.06	.76	.90	.83	.25	.98	-.14	-.16

주. 1. 어머니의 일상생활장애, 2. 어머니의 가상세계지향성, 3. 어머니의 금단, 4. 어머니의 내성, 5. 어머니의 파스함, 6. 어머니의 자율성지지, 7. 어머니의 구조제공, 8. 긍정적 또래관계, 9. 부정적 또래관계, 10. 청소년의 일상생활장애, 11. 청소년의 가상세계지향성, 12. 청소년의 금단, 13. 청소년의 내성.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긍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또래관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을 살펴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869.986(df = 59, p < .001)$, NFI = .911, TLI = .889, CFI = .916,

RMSEA = .080로 나타났다. TLI와 CFI의 값이 .90이상, RMSEA의 값은 .05에서 .08 사이라는 적합도 평가 기준에 비추어 볼 때(Browns & Cudeck, 1993),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 측정변인들은 각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측정하므로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배병렬, 2017).

3. 구조모형의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그림 2 참조). 그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 = 751.648(df = 93, p < .001)$, NFI = .927, TLI = .916, CFI = .935, RMSEA = .058로 적절하였으며, 모든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어머니의 학력과 평균 월 가구 소득, 청소년 성별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beta = -.13, p < .05$),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beta = -.64, p < .01$)로,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beta = -.43, p < .05$)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beta = .16, p < .01$)으로 향하는 모든 직접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다음으로 각 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95% CI k = 5,000)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하였다($\beta = .04, p < .05$). 다중매개모델인 경우 Amos에서 보고되는 간접효과는 총 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이기 때문에 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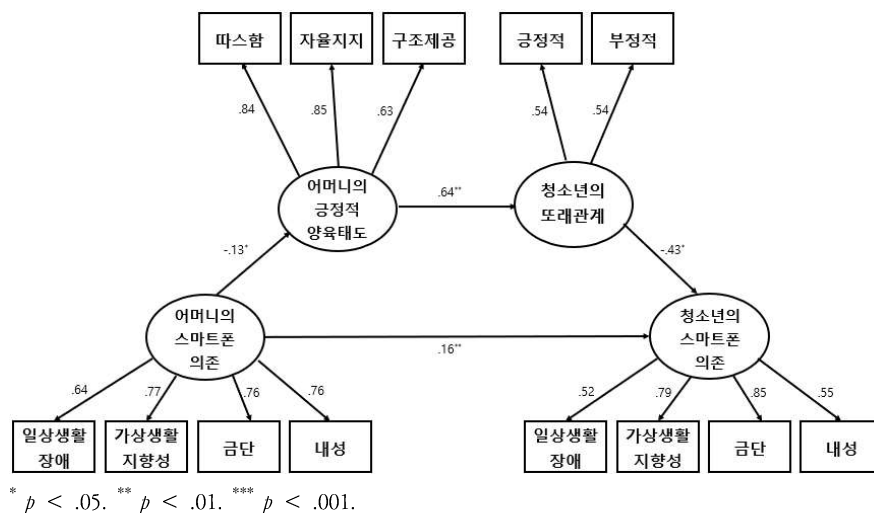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

표 3. 직·간접효과, 총효과 및 Bootstrapping 검증

(N = 2,137)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13*		-.13*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 청소년의 또래관계	.64**		.64**
청소년의 또래관계 →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43*		-.43*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16**	.04*	.20**

* $p < .05$. ** $p < .01$.

템변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간접효과를 분리하여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간접경로는 연속다중매개모델로, 이 경우에는 팬텀변수에 의해 분석하지 않아도 Amos의 결과와 동일하다(배병렬, 2017). 그러므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또래관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긍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연

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부모변인으로,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 또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습관이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신하나, 정세훈, 2018; Liu et al., 2013; Nakken, 2009; Xie et al., 2019)과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이 청소년기 자녀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특히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국내 선행연구들이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권미영, 정윤주, 2018; 김인숙, 김도연, 2017; 마은실, 정윤경, 2020; 황신해, 장소현, 2019), 본 연구는 한국에서 어머니의 높은 스마트폰 의존이 영유아기 및 학령기를 지나 청소년기 자녀에게도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녀는 부모가 스마

트폰에 의존하는 모습에 집중하고 그 행동을 기억하게 되어 본인의 행동기준으로 작용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부모의 행동과 일치하게끔 의존하는 행동을 재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학습이론으로도 지지되는 바이다. 즉,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유형은 영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도 꾸준히 자녀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와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형태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과 함께 어머니-청소년기 자녀 간 스마트폰 의존의 세대전이가 일어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 수준은 낮았으며, 긍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은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높은 스마트폰 의존 수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와 양육태도 간의 관계(박남심, 송승민, 박보경, 김정은, 변유정, 2017; Mun & Lee, 202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의 밀접한 관계(신효식, 이선정, 박순화, 2001; 임정아, 김명식, 2018; Brown & Bakken, 2011),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 간 관계(박명준, 오종현, 신성만, 2014; 조준범, 2017)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세대전이 과정에서 부모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매개한다는 연구들(Kim et al., 2020; Mun & Lee, 2021)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이상준, 2015),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높은 부모의 경우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다. 부모의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개입과 중재와 같은 행동이 청소년 자녀에게 인터넷 사용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Vaala & Bleakley, 2015)가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어머니-청소년 간 스마트폰 의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매개역할을 했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애정을 보이고 합리적 설명을 하고 감독을 하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휴대폰 의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일부 연구들(김소영, 홍세희, 2014; 김지혜, 2012)과는 불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용도를 완전매개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김지혜, 2012),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게임하는데 더 사용하는지, 통화를 하는데 더 사용하는지에 따라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애정을 가지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양육을 하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가족과 연락하고 소통하는데 더 사용하고,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

용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중요하며,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부모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과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더 유용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결과는 상당수 연구들(김대웅, 이강이, 2020; 조준범, 2017; 황소희, 이영애, 2018)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좋으면 스마트폰 의존이 높아졌다는 연구(노석준, 2013)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김지혜, 2012)와는 불일치한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이 또래와의 애착이 높아도 스마트폰을 친구와의 연락이나 게임하는데 사용할 때만 스마트폰 의존이 높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정도가 높아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내성이 생기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스마트폰 의존의 세대전이 과정에서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순차적인 매개적 역할은 자기조절력 세대전이모형(Bridgett, Burt, Edwards, & Deater-Deckard, 2015)을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한 경우 자녀가 보다 열악한 양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양육환경은 유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한 단

면인 자녀의 부정적 또래관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 부족을 겪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금단현상과 내성 증상을 보이게 되면,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구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이러한 양육환경은 청소년이 또래와도 친밀감을 갖는 행동을 더 적게 보이고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거나 또래관계에서의 만족을 느끼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순차적인 매개로도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대한 높은 의존은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에 대한 높은 의존을 예측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의존 정도가 높으면 긍정적 양육태도가 낮아지며, 이는 청소년기 자녀의 긍정적 또래관계의 질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어머니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Lamb & Lewis, 2004)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나 의존 정도를 구분하여 함께 살펴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청소년 전체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의 연구대상도 수집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그 선행요인들에 대한 추후검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조윤주, 2019; 하문선, 2014; Lapierre, Zhao, & Custer, 2019)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종단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과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세대 전이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밝히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이 그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대상이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행동을 수정하거나 확고화할 수 있는 청소년기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함께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부모 차원에서도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를 낮추고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며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교육이 함께 필요함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다각적 개입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영, 김은향 (2017). 불안과 우울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5), 419-429.
<https://doi.org/10.14400/JDC.2017.15.5.4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권미영, 정윤주 (2018).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 간 관계.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지*, 21(1), 153-169.
<https://doi.org/10.17641/KAPT.21.1.8>
- 권예지, 나은영 (2017). 부모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 통제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2), 80-113.
<https://doi.org/10.22174/jcr.2017.54.2.80>
- 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네트워크 크기, 이용행태, 또래친구

- 와의 관계지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4), 5-40.
- 김대웅, 이강이 (2020). 중학교 1학년 또래 관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목적별 이용 정도에 따른 다집단 분석.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1(5), 45-58.
<https://doi.org/10.5723/kjcs.2020.41.5.45>
- 김도연, 양혜정 (2014). 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5(3), 169-197.
<https://doi.org/10.14816/sky.2014.08.74.169>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김미영 (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석, 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분석 및 부모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1), 77-99.
<https://doi.org/10.15284/kjhd.2015.22.1.77>
- 김민정 (2019). 청소년 문제행동과 부정적 또래관계의 상호영향관계: 부모 양육태도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미래사회복지연구*, 10(1), 107-138.
<https://doi.org/10.22836/kaswpr.2019.10.1.107>
- 김소영, 홍세희 (2014). 중학생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3), 101-123.
<https://doi.org/10.14816/sky.2014.08.74.101>
- 김영미 (2020).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수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2), 479-494.
<https://doi.org/10.5762/KAIS.2020.21.2.479>
- 김인숙, 김도연 (2017).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아시아교육연구*, 18(2), 221-244.
<https://doi.org/10.15753/aje.2017.06.18.2.221>
- 김정숙 (2003).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강현아 (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39-52.
<https://doi.org/10.5392/JKCA.2017.17.08.039>
- 김지혜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3), 97-120.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https://doi.org/10.21509/KJYS.2017.03.24.3.313>
- 김희민, 신성희 (2015).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24(3), 145-155.
<https://doi.org/10.12934/jkpmhn.2015.24.3.145>

- 노석준 (2013). 고등학생의 환경 및 개인심리 요인, 스마트폰 이용동기,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659-691.
- 노충래, 김소연 (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87-114.
<https://doi.org/10.14816/sky.2016.27.4.87>
- 류미숙, 권미경 (2011). 휴대폰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 비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4(2), 76-83.
- 마은실, 정윤경 (2020). 어머니 스마트폰중독경향성이 유아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놀이참여도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9(1), 85-100.
<https://doi.org/10.22839/adp.2020.9.1.85>
- 문두식, 최은실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13-236.
- 박남심, 송승민, 박보경, 김정은, 변유정 (2017).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5), 1-19.
<https://doi.org/10.14698/jkce.2017.13.05.001>
- 박명준, 오종현, 신성만 (2014). 사회적 지지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실존적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85-1202.
<https://doi.org/10.17315/kjhp.2014.19.4.016>
- 박소영, 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3), 25-45.
<https://doi.org/10.15284/kjhd.2015.22.3.25>
- 박웅기 (2003). 대학생들의 이동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2), 250-281.
- 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2014).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1), 55-70.
<https://doi.org/10.18205/kpa.2014.19.1.003>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배정숙 (2014).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라, 한기백 (2015). 과학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4), 93-111.
- 신경미, 황순택 (2016). 학대·방임, 정서문제와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7(4), 115-147.
<https://doi.org/10.14816/sky.2016.27.4.115>
- 신하나, 정세훈 (2018).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사회환경적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

- 커뮤니케이션학보, 35(3), 5-50.
<https://doi.org/10.36494/JCAS.2018.09.35.3.5>
- 신효식, 이선정, 박순화 (2001).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초기청소년의 또래지향. *한국가정과학회지*, 4(1), 26-35.
-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미라, 박세정 (2020).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 자율성지지,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5), 169-191.
<https://doi.org/10.21509/KJYS.2020.05.27.5.169>
- 이병윤 (1992). *현대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이상준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따른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비교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2), 55-79.
- 이상준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3(4), 75-95.
<https://doi.org/10.18859/ssrr.2017.11.33.4.75>
- 이하나, 양승목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영향 변인의 관계에 대한 학령 및 성별 비교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스마트폰 이용 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5), 175-214.
<https://doi.org/10.20879/kjics.2018.62.5.006>
- 이현이, 이영선 (2019).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환경적 요인의 매개 효과 단기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6(6), 193-219.
<https://doi.org/10.21509/KJYS.2019.06.26.6.193>
- 임선아, 권미나 (2016).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의 종단적 매개효과. *아동보호연구*, 1(2), 55-83.
- 임연정, 진미경 (2015). 아동이 지각한 부, 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 18(4), 329-348.
<https://doi.org/10.17641/KAPT.18.4.4>
- 임정아, 김명식 (2018).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공격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3), 395-405.
<https://doi.org/10.14400/JDC.2018.16.3.395>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87-1305.
<https://doi.org/10.15703/kjc.12.4.201108.1287>
- 정미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영 (2016).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 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2, 87-120.
- 정하영, 최선영 (202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883-902.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4.883>
- 조경서, 김은주 (2016).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3, 77-104.
- 조윤미, 이형선 (2016).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1(2), 1-16.
- 조윤주 (2019). 학령후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 *아동학회지*, 40(6), 49-62.
<https://doi.org/10.5723/kjcs.2019.40.6.49>
- 조춘범 (2017).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2, 5-34.
<https://doi.org/10.17997/SWRY.52.1.1>.
- 통계청. (2021). 2021년 청소년통계. 대전: 통계청.
- 하문선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종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4), 313-336.
<https://doi.org/10.15753/aje.2020.12.21.4.1001>
- 황소희, 이영애 (2018). 중학생의 우울증상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 21(3), 343-363.
<https://doi.org/10.17641/KAPT.21.3.3>
- 황신해, 장소현 (2019). 어머니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 관계에서 어머니의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39(2), 5-23.
<https://doi.org/10.18023/kjece.2019.39.2.001>
- Bandura, A. (1971). *Social learning theory*. Morristown.
- Bridgett, D. J., Burt, N. M., Edwards, E. S., & Deater-Deckard, K. (2015).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regulation: A multidisciplinary review and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41(3), 602-654.
<https://doi.org/10.1037/a0038662>
- Brown, B. B., & Bakken, J. P. (2011). Parenting and peer relationships: Reinvigorating research on family? Peer linkages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153-165.
<https://doi.org/10.1111/j.1532-7795.2010.00720.x>
- Brown, M. W., & Cudeck, R.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ong (Eds.),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pp. 136-162).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Chambers, R. A., & Potenza, M. N. (2003). Neurodevelopment, impulsivity, and adolescen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9(1), 53-84.
<https://doi.org/10.1023/A:1021275130071>
- Gladwin, T. E., Figner, B., Crone, E. A., & Wiers, R. W. (2011). Addiction, adolescence, and the integration of control and motivation.

-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1(4), 364-376.
<https://doi.org/10.1016/j.dcn.2011.06.008>
- Kildare, C. A., & Middlemiss, W. (2017). Impact of parents mobile device use on parent-child interaction: A literature re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5, 579-593.
<https://doi.org/10.1016/j.chb.2017.06.003>
- Kim, C., Kang, K. I., & Lee, N. (2020).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s of mother? Adolescent smart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parenting and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6), 5871-5883.
<https://doi.org/10.3390/ijerph17165871>
- Kim, S. E., Kim, J. W., & Jee, Y. S. (2015).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physical activity i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3), 200-205.
<https://doi.org/10.1556/2006.4.2015.028>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amb, M. E., & Lewis, C. (2004).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In M. E. Lamb (Ed.),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two-parent families* (pp. 272-306).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Lapierre, M. A., Zhao, P., & Custer, B. E. (2019). Short-term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smartphone use/depend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5(5), 607-612.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9.06.001>
- Lemola, S., Perkinson-Gloor, N., Brand, S., Dewald-Kaufmann, J. F., & Grob, A. (2015). Adolescents' electronic media use at night,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smartphone 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2), 405-418.
<https://doi.org/10.1007/s10964-014-0176-x>
- Lepp, A., Barkley, J. E., & Karpinski, A. C.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use, academic performance, anxiety,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343-350.
<https://doi.org/10.1016/j.chb.2013.10.049>
- Liu, Q. X., Fang, X. Y., Deng, L. Y., & Zhang, J. T. (201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rental internet use and internet-specific norms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Chinese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4), 1269-1275.
<https://doi.org/10.1016/j.chb.2012.02.010>
- Liu, Q. X., Fang, X. Y., Zhou, Z. K., Zhang, J. T., & Deng, L. Y. (2013). Perceive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perceived parental online behaviors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adolescents: Gender-specific differences. *PloS One*, 8(9), e75642.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75642>
- Lu, X., Watanabe, J., Liu, Q., Uji, M., Shono, M., & Kitamura, T. (2011). Internet and

- mobile phone text-messaging dependency: Factor structure and correlation with dysphoric mood among Japanese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5), 1702-1709.
<https://doi.org/10.1016/j.chb.2011.02.009>
- McDaniel, B. T., & Coyne, S. M. (2016). Technology interference in the parenting of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mothers' perceptions of coparenting. *The Social Science Journal*, 53(4), 435-443.
<https://doi.org/10.1016/j.soscij.2016.04.010>
- Mun, I. B., & Lee, S. (2021). How does parental smartphone addiction affect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Testing the mediating roles of parental rejection and adolescent depress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4(6), 399-406.
<https://doi.org/10.1089/cyber.2020.0096>
- Nakken, C. (2009). *The addictive personality: Understanding the addictive process and compulsive behavior* (2nd ed.). Center City, MN: Hazelden Publishing.
- Pinquart, M. (2017).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ex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 updated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53(5), 873-932.
<https://doi.org/10.1037/dev0000295>
- Samaha, M., & Hawi, N. S. (2016).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321-325.
<https://doi.org/10.1016/j.chb.2015.12.045>
- Seo, D. G., Park, Y., Kim, M. K., & Park, J. (2016). Mobile phone dependency and its impacts on adolescents' social and academic behavio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3, 282-292.
<https://doi.org/10.1016/j.chb.2016.05.026>
- Shoukat, S. (2019). Cell phone addiction and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health in adolescents. *EXCLI Journal*, 18, 47-50.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502_3
- Thomé, S., Härenstam, A., & Hagberg, M. (2011). Mobile phone use and stress, sleep disturbanc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 A prospective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11(1), 1-11.
<https://doi.org/10.1186/1471-2458-11-66>
- Vaala, S. E., & Bleakley, A. (2015). Monitoring, mediating, and modeling: Parental influence on adolescent computer and internet us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9(1), 40-57.
<https://doi.org/10.1080/17482798.2015.997103>
- Wolfers, L. N., Kitzmann, S., Sauer, S., & Sommer, N. (2020). Phone use while parenting: An observational study to assess the association of maternal sensitivity and smartphone use in a playground sett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2, 31-38.

<https://doi.org/10.1016/j.chb.2019.08.013>
Xie, X., Chen, W., Zhu, X., & He, D. (2019).
Parents' phubbing increases adolescents'
mobile phone addiction: Roles of parent-child
attachment, deviant peers, and gende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5, 104426.
<https://doi.org/10.1016/j.chldyouth.2019.104426>

1 차원고접수 : 2021.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3.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The Effect of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Kim, Soyoung

Yun, Kibong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f mothers and the quality of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have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in which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affects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137 adolescents (1,148 males, 989 females)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1st year of the middle school 1st year panel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directly affected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The higher the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the higher the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Second, the influence of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This study revealed a proces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between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and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This study also emphasized the role of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in the proces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martphone dependency.

Keywords: mothers' smartphone dependency;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positive parent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